

# ‘촘촘한 복지 실현’ 무안군, 맞춤형 장애인 지원 ‘총력’

### 장애인 분야 140억 예산 배정...전년비 15억 증액 복지시설·활동 단체 지원 등 장애인 수당 지급도

무안군이 맞춤형 장애인 지원을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무안군 전체 본예산에 2.3%에 해당하는 140억 원의 예산을 장애인 분야에 배정했으며, 긴급재정 추경에서도 지난해 대비 15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6천13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7%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 5.1%보다 높은 비율이며, 심한 장애인 수는 2천481명(4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천658명(60%)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장애인복지시설과 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장애인단체 5개소의 운영

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활용해 각 지역 상황과 장애 유형 특성에 맞는 사회적응훈련·가족에 대한 후원, 멘토링 사업·정보화 교육, 미술학습, 건강관리지원, 식당 운영 등 120여개 사업을 운영한다.

일평균 100여명의 이용자들에게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업재활 시설에서는 도자기 작업 활동, 제과제빵 프로그램 운영 등 자신의 능력·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근로 장애인 12명, 훈련 장애인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청각·언어장애



무안군이 맞춤형 장애인 지원을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체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 차량 전달식(왼쪽)과 중증장애인 도자 전시회 현장.



(무안군 제공)

인에게 수어통역·상담 서비스를 월평균 250~300건 진행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어 교실을 연 30회 운영하고 있다.

또 무안군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1천600여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을 지급 중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월 4만원에서 42만4천810원을 70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900여명에게는 장애수당 3~22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현재 5개 분야

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형(전일제) 17명, 일반형(시간제) 5명, 복지일자리 13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2명, 전남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2명 등 총 59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맞춤형 장애

인 복지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장애인이 살기 좋고 더 나아가 모두 더 잘사는 상생 무안을 실현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사회를 군민과 함께 건설해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 운병태 나주시장, 국비확보 ‘전력투구’

### 기재부·과기부 등 방문...86개·2천419억 규모 사업 건의

운병태 나주시장이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매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전력투구’에 나섰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1일 운병태 시장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교육부를 방문해 2025년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과 면담에서는 나주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향후 정부예산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에 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실비’ 구축을 비롯한 정부 R&D 사업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

도록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 전국장과 면담을 통해 나주시 교육발전특구의 적극 지원과 함께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30’ 공모에 동산대학교가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나주시의 주요 건의 사업은 총 86개 사업에 건의액 2천419억원(국비) 규모로 신규 발굴 사업은 31개 사업, 314억원(국비)에 이른다.

주요 신규 국고 건의사업은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을 비롯해 에너지신산업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에너지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신선전력 전력기차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등이다.

운병태 시장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



력이 될 에너지 신산업 등 핵심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활동을 펼치겠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남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기적절한 국비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3만7천명 방문 ‘성료’

### VR 체험·전통 바다낚시·해양치유 홍보관 등 인기

“2024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에 3만 7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대한 막을 내렸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지난 3~6일 ‘잡고, 먹고, 치유하는 정정바다 힐링 페스티벌’을 주제로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

어린이날에는 많은 비가 내려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가족 단위,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총 30종의 프로그램 중에서 전통 바다낚시, 키자니아 Go 완도, 해양치유 홍보관이 큰 인기를 끌었다.

해변공원 앞 해상 100m의 대형 낚시터에서 진행된 ‘전통 바다낚시’는 회차마다 예약이 끊이지 않아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해양치유 홍보관에서는 해양치유센터 가상 현실(VR) 체험과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선보이고 롤러 이벤트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해양치유 홍보 영영으로 어린이날에만 432명이 해양치유센터를 찾았으며, 이는 센터 개관 이후 1일 방문객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키자니아 Go 완도’는 2천여명의 어린이가 방문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했으며,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전통 노 젓기 대회’와 ‘청해 트로트 가요제’는 각 읍·면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으며, 22km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사진)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이색적인 추억을 남겼다. /완도=윤보현 기자

## 해남군, 셋째부터 대학교 학자금 지원 31일까지 접수...학기당 최대 150만원

해남군은 9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부터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집 요건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셋째 이상 30세 미만 자녀다.

원격 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8학기까지 지원한다. 대상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실제 본인 납부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대학교에 학자금 중복 여부를 확인 후 대학교에 선지급되며, 이미 납부한 학자금은 각 대학교에서 반환해 준다.

올해 1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서는 이달 31일까지 접수하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자의 신분증, 학자금 납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학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다자녀 가정 자녀 106명에게 1억7천300만원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해남=백필용 기자

## 목포해수청, 어룡도·죽도 등대 현대화 추진

### LED 등명기·원격감시기능 갖춘 현대화 등대 개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9일 “어룡도·죽도 등대를 LED 등명기와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갖춘 현대화된 등대로 개량하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개량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룡도등대(1910년 초 점등)는 해남군 땅끝마을 앞 해상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수심이 얇은 인근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죽도등대(1907년 초 점등)는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분기점으로 부산과 인천, 목포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개량되는 두 등대는 기존 전구식 등명기를 LED식으로 교체해 효율을 높이는 한편, 등명기 점소등을 비롯해 발

진기, 장비실 온·습도 등 등대를 구성하는 장비와 환경이 24시간 운영센터에서 감시제어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공사 기간 중에는 대체 등명기를 밝혀 항해자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



죽도 등대.



어룡도 등대.

## 강진 다산박물관, 포토존 설치

### 정약용 저서 목민심서 전달 모습 형상화

강진군은 9일 “다산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산 포토존(사진)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포토존은 다산박물관 외벽에 정약용 선생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전달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그의 저서가 갖는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목민심서는 조선 시대 목민관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며, 공정하고 청렴

한 행정을 추구한 중요한 저서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목민심서의 핵심 내용을 담아낸 포토존은 방문객에게 역사와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특별한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토존은 박물관 외벽에 설치돼 있어 입장권 없이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 다산박물관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포토존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접할 수 있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신안군, 햇빛아동수당 100% 증액

### 1인당 반기별 40만원→80만원

신안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아동수당을 100% 확대 지급한다.

신안군은 9일 “상반기 햇빛아동수당이 최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집중 배부를 시작해 장학적금과 아동수당이 이달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햇빛아동수당이 1인당 반기별 40만원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

햇빛아동 적금이 신규 출시됨에 따라 햇빛연금을 포함한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69명 증가해 총 2천888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출시된 햇빛아동 적금 가입자

는 1천246명으로 가입률은 전체 아동수의 43%이며, 적금을 포함한 상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액은 11억5천500만원, 연간 22억1천만원에 달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해 수당이 2배가 증가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햇빛아동 적금과 햇빛아

동수당을 통해 신안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희망찬 미래를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정대 신재생에너지 연합회 이사장은 “올해도 기념식(사진)을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햇빛아동수당을 통해 아동 복지 증진과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제2회 햇빛아동수당 기념식